문집과 장지문등 전실된

돈간재 權大載공 비문 등 나와 [續]

규장각 權奇奭 학예사가 찾아내

공의 휘는 대재大載 자는 중거仲車이고 그 선조 태사太師휘 행幸이 권權씨성을 얻어 식읍食邑 안동安東에서사당제향을받고12대에 이르러 첨의중서사僉議中書事 휘 보溥가 도덕문장으로 세상에이름났는데호가국재菊齋이다. 그 8대손에 휘 상常이 그 행의가 계문啓聞되어 정려旌閭를 받고 동지중추同知中樞로 직질을 올려받았는데 다시 영의정 동흥부원군東興府院君으로 추증되니 공에게 증조가 된다. 조부휘 협 은 임진의 난에 어가御駕가 서행西幸할 때 호종扈從하고 천자의 조정에 가서 군사를 보내주기를 빌었는데 연경燕京에 세 차례 왕복한 공이 있어 선무공신宣武功臣에 책훈되고 예조판서에 길창군吉昌君이 되었는데 졸하여 영의정에 길창부원군으로 추증되고 충정忠貞의 시호를 받았다. 아버지 휘 위중偉中은 진사進士로서 일찍 졸하여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이고 어머니 증정부인贈貞夫人 고령신씨高靈申氏는 부원군府院君 숙주叔舟의 후손 수의부위修義副尉 종사宗泗의 딸인데 만력萬曆(명 신종) 경신庚申(1620) 12월 병진丙辰(13일)에 공을 낳았다. 판서공判書公(부친)이 몰歿하니 공이 나서 겨우 10세라 최질衰 의 상복을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상례를 집행하는 것이 성인成人과 같았고 모부인 신씨가 물 한 모금조차 끊고 (부군을) 따라 죽을 것을 맹세하니 공이 미음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며 말하기를‘ 여러 고아孤兒가 이미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어머니 또한 여러 고아를 버리고자 하시면 여러 고아는 믿을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울먹이며 흐느끼니 모부인이 불쌍히 여겨 이를 받아 마시는것을보고좌우가모두울며칭찬하였다. 종부從父(숙부) 증의정공贈議政公(증영의정근중謹中, 영의정 대운大運의 부친)에게서 배웠는데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뛰어나고 문장의 화려함이 날로 달라지니 증의정공이 매양 울며 어루만지고‘ 자식이 있어 이와 같으니 내 아우가 죽지 않았다 ’ 하였다. 약관에발해시發解試에응했으나 불리하자 문득 스스로 뼈를 깎듯이 힘써 독서해서는 깊고 박식하여 한계가 없는 것과 같이 되더니 병술丙戌(1646) 사마시司馬試에 입격하고 계사癸巳(1653) 별해別解에서 우두머리로 발탁되고 이어 전시殿試에서 등제登第하여 승문원承文院에 선입되고 승정원承政院의 주서注書가 되어서는 나아가고 물러감이 세심하고 전아典雅하며 기주記注를 하는 것이 민첩하면서도 풍부하니 병으로 체직되기를 아뢰었을 때 임금이 특별히 조리를 하면서 직무를 볼 것을 명했다. 병신丙申(1656) 중시重試에 급제하니 관례에 따라 전적典籍으로 승진되고 이듬해 예조와 병조의 좌랑佐郎을 거쳐 창평昌平의 읍재邑宰로 나갔다. 무릇 간악한 호족豪族으로서 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자는 통렬히 법으로 묶어 조금도 용서하지 않으니 이 무리가 공을 이동시키고자 모의하여 전패殿牌(고을의 객관客館에 임금을 상징하는 전殿자를 쓴 패를 모신 것)를 훔치고 병부兵符(군령이나 군사를 동원함에 쓰는 부절)를 도둑질하기에까지 이르니 일이 계문되자 임금이 그 관직을 파면하였는데 마침 그 계략이 알려져 파직시키지 말 것을 특명했다. 공이 자기는 검약하고 백성은 여유롭게 하며녹름祿 을덜어선비를기르니 백성이 그 혜택을 가슴에 품고 선비는배움에흥기하였다. 이듬해에 직이 파하여 돌아가니 백성의 부로父老와 어린이까지가 수레바퀴를 더위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기해己亥(1659) 전적典籍으로 서용敍用되고 병조의 좌랑과 정랑正郎을 거쳐 전라도 도사都事를 배수하였다. 경자庚子(1660) 시험을 관장하였는데 호남의 풍속이 사나워 자기와 출신지가 다른 사람은 물리쳐 내쫓고 더불어 같이 시험을 보지 않으려하니 공이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를 불허하였다. 이에 그 무리가 떼지어 일어나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므로 공이 그 가운데 심한 무뢰배를 가려 관찰사의 순영巡營에 보고해 다스리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말을 만들어 공을 얽어서 공이 잡혀가 추국推鞫을 받고는 관직이 삭탈되었다. 공이 물러나서는 연성蓮城(지금의 경기 안산)으로 내려가 간은동艮隱洞에 집을 짓고 그 서재書齋 이름을 돈간敦艮이라 하고는 우물을 치고 나무를 심으며 시문을 읊조리는 것으로 자적自適하며 장차 몸을 마치려는 것같이 하니 미수眉 허선생許先生(허목許穆)이그 기문記文을썼다. 병오丙午(1666) 서용되어 공산현감公山縣監(공주)이 되니 공이 어버이 봉양을 위해 일어나부임하였다. 공산은감영監營 아래의 큰 고을이라 정사가 오래도록 완고한 폐단이 있으며 아전은횡포하고백성은시끄러웠다. 공이 일관되이 창평에서 했던 것과 같이 다스리자 간악한 호족은 두려워 숨을 죽이고 양민은 고무되었다. 송사를 제기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헌사憲司에서 굴패屈敗하게 되자 일에 공이 저촉되어 취리就理(의금부에 나아가 심문을 받음)하여 무고되었음을 변명하니 임금이 특명하여 직임을 그대로 띤 채방출해 보내게하였다. 이때 정부인貞夫人(모친)이 공을 따라 도성에 들어왔는데 공이 비록 조정의 명으로 핍박을 받았음에도 힘써 임지로 돌아갔다. 병오丙午(1666) 정부인이 서울에 있으면서 질환이 들어 수일에 몰하니 공이 성야星夜로 분귀奔歸하여 몸소 시약侍藥을 하지 못하고 염습을 하는 데에 미치지 못한 것을 평생의 지통至痛으로 여겨 거의 보전保全을못할지경이었다. 복상服喪을 마치고는 직강直講을 거쳐 대구판관大邱判官에 제수되었는데 이해 경술庚戌(1670) 온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죽은 사람이 서로 이어지므로 공이 가고 싶지 않았으나 때가 좋지 않다고 하여 부임치 않으면 백성의 목숨을 그르칠 수가 있을 것을 생각하여 부임해 이르러서는 재정회계를 절약하고 긴축하면서 곳집에 저축한 곡식을 출연出捐하여 미싯가루를 만들어 퍼뜨리고 죽을 쑤어 나누어 가난한 자를 살리고 주린 자를 먹이니 사방에 흩어져 해매던 자들이 돌아오고 온전히 살아난 자가 무수하였다. 또한 고을 북쪽 동수桐藪(팔공산)에 가 신장절공申壯節公(신숭겸申崇謙)의 사당을 세우니 이는 신장절공이 치명致命한 곳이라, 이는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 영혼이 노닐게 함으로써 결여된 전례를 거행한 것이요 이로써 공이 청사靑社의 정사를 넉넉히 편 바였다. 이듬해 파직되어 돌아오고 임자壬子(1672) 부평부사富平府使에 제수되었다가 잠시 만에 충주목사忠州牧使로 이동하니 충주는 또한 강원도와 영남에 가까이 있는 중간의 한 도회都會인지라 땅이 넓고 사람이 많은 데다 풍속이 잡되고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공이 풍속의 손익損益에 따라 재부財賦와 조세를 생감하여 주니 백성이 귀순하여 순종하는지라 백가지 폐단을 고쳐 닦아 바로잡았다. 조정이 이를 가상嘉賞하여 동래부사東萊府使로 승배陞拜시켰다. 이때에 변경의 방금防禁이 침투되고 해이해 왜관倭館에 있는 왜인이 어지러이 출몰해 나다니며 우리 백성에게 사사로이 장사를 하는데 뇌물이 교환되면서 이를 금하지않았다. 공이이르러곧호령을 엄숙히 하고 조약條約을 신장시켜서는 관시關市(관세 구역의 저자)가 아니고서는 감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 상고商賈와 역관譯官이 불편한지라 왜인을 사주하여 위로연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트집과 사단을 일으키게 하니 조정에서 공을 잠시 파직시키고 구금하였다. 갑인甲寅(1674) 숙종肅宗이 즉위해서 형조참의刑曹參議를 배하고 잠시 만에 승지承旨가 되었는데 조정에서 바다의 병비가 소홀해진 것을 우려하여 공에게 영남지방을 순무巡撫하도록 명했다. 돌아와복명復命하고는호조참의를 배하고 잠시 후 호남관찰사를 배하였다. 공이수레에올라 고삐를 잡고서는 개연慨然히 맑고 깨끗하게 다스릴 뜻을 세우자 검은 탐관오리貪官汚吏가그 바람을 맞고는 인수印綬를 끌러놓고 달아났는데 문득 사안이 생겨 파직되었다. 병진丙辰(1676) 가을에 다시 승정원에 들어오고 대사간大司諫으로 옮겼다가 겨울에 예조참의로 교체되어 비변사備邊司 부제조副提調를 겸대하였는데 가선대부嘉善大夫로올라대사간을배하였다. 정사丁巳(1677) 봄에 바뀌어 병조참판을 배하고 교체되어 대사헌大司憲이 되었는데 이때에 천재天災가 있어 공이 입시入侍해서는 덕을 닦아서 재앙을 완화시키는 도리를 삼고 마음을 바로 하여 덕을 닦는 근본으로 삼으며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의 사이를 부석剖析하여 천덕天德과 왕도王道로써 시종始終하는 세 가지에 치의致意할 것을 아뢰고 또 심경心經 한 책을 가지고 경연에서 진강進講케 하여 체득하고 인지할 바탕을 삼을 것을청하니상께서가납嘉納하였다. 여름에 형조참판을 배하고 진주사進奏使가 되어 출국하게 되어서는 사직하여체직되었다. 가을에복명하니 진주사로서 황제에게 청하여 허락받은 일로 가자加資(품계를 더함)를 특명받으니 공의 종형從兄 좌상공左相公(당시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임금을 입대入對하여 과람한 은전을 거두어줄 것을 청하므로 임금이 윤허하고 내구마內廐馬를 하사하였다. 특진관特進官으로써 경연에 입시하니 임금이 중용中庸을 강하므로 공이 진언하기를 ‘ 이 장의 말씀은, 말은 가까우나 가리키는 것은 먼데 그 바탕은 사람의 마음이 주된 것입니다. 그것이 크게 이르면 천지가 만물을 화육化育하는 지위가 되는데 그 공교로운 것은 경敬의 한 자에 있으며 그 기미를 살펴 명확히 결정하는 것은 인욕人欲을 막고 천리를 보존함에 있은즉 경敬이라는 것은 동정動靜을 관통하여 체용體用을 한가지로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구마狗馬와 성색聲色(가무와 여색)으로써 서리어 노닐고 연락宴樂을 하는 것은 우선으로경계해야할일입니다 ’하니임금이가납하였다. 이윽고대사헌을 배해서는 사직하여 체직되고 경기관찰사를 배수해서는 청탁을 두절시키고 등용하고 축출함을 엄격히 하며 재해와 흉년을 살펴 백성의 조세를 감해주고 돈을 주조하거나 말을 고용하여 역참에서 우전郵傳하는 비용을 덜 들게 하니 지금까지 그 힘을 입고 있다. 무오戊午(1678) 예조참판을 배하고 행대사간行大司諫으로 교체되었다가 기미己未(1679) 봄에 예조참판으로 돌아가 비변사와 승문원、빙고氷庫 등의 제조提調를 겸대하였다. 곧이어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를 겸대하니 소를 올려 사직하자 임금이 회보하기를 ‘ 경의 문학文學이 이 직임에 윤협允 하다 ’하고 불허하였다. 다시행대사간으로옮겼다가 곧 대사헌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때 남파南坡 홍우원洪宇遠이 이조판서로 있으니 공이 도승지都承旨 민종도閔宗道와 연장連章으로 꾸짖고 들추어내어 기로耆老의 덕망을 만멸慢蔑하니 일이 마땅히 규경規警해야 할 바라 하여 마침내 간서簡書를 발하여 탄핵코자 하였다. 그러나대간臺諫의의논이 화합되지 아니하여 혹은 서명하고 혹은 서명하지 않으므로 공 또한 인피引避하였는데 장령掌令 조지석趙祉錫이 임금께 아뢰어 공이 체직되게하였다. 여름에예조참판을 배하고 대사간으로 옮겼는데 마침미상眉相(재상미수眉 허목許穆)이 재상 허적許積 부자를 논핵하니 시의時議가 더욱 시끄러웠다. 도승지 민암閔 이 일대를 청해 들어가서는 허모許某(허목)가 노모老夫하여 흐린데 일을 그르치게 한 자가 있는 것같다면서 공을 지목해 말하니 임금이 크게 노하여 공을 종성부사鍾城府使로 제수해내보냈고대신臺臣5인도다외직으로배척되어보임되었다. 다음날 우의정이 청대請對하여 또 민암과 같이 의논하면서 지목해 성언盛言하니 공 부자 및 이옥李沃、이봉징李鳳徵 등의 논의가 괴격乖激하다가 모두가 찬배竄配되었다. 이어 미상眉相(허목)에게자백하라 명하니 미상이 입대하여 노신老臣이 홀로 한 것이지 타인과 더불어 한것이아니라 하였다. 이에 미상이 조정을 떠나고 좌상左相(권대운)은 파직되었으며 홍공洪公(홍은원) 또한파직되었는데3인이 다 조야朝野에서 인망이 무겁던 터라 인심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겨울에 벼락의 재변으로 말미암아 공 부자와 이공옥李公沃、이공봉징李公鳳徵이 다 석방되었다. 경신庚申(1680) 큰 옥사가일어나견堅(허적의아들허견)이주살되고 남飇 등과 말이 연관되어 진신搢紳들이 피폐하여 시달리지 않음이 없었는데 홀로 공만이 말을 더할 것이 없다가 호남에 있을 때의 일이 추론追論되어 영변寧邊으로 찬배되고 아들 학사공學士公(장자 부제학 해)은 창평昌平에 유배되고 좌상공左相公(권대운)은 하동河東에 안치安置되었다. 계해癸亥(1683) 정월에 공이 소를 올려 받은 판결로 석방되어서는 봉산鳳山에 우거寓居하였다. 기사己巳(1689) 봄에 홍문관 제학弘文館提學을 배수하고 이어 호조판서戶曹判書 겸 동지경연同知經筵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를 배하였는데 이때 공이 연성蓮城(안산)에 거주하면서 사직하고 나가지 아니하니 임금이 재차 교지를 내리므로 부름에 나아가 마침내 도성에 들어와서는 글을 올려 사직하였으나 임금이 권장하여 달래며 불허하였다. 이보다 앞서 북경北京에 가는 사신의 수용지물需用之物을 취하여 백성에게 팔고 또 그 직원直員에게 주니 미곡이 다 매매로 소용되는지라 유사자有司者가그 출납에 인색해져서 미곡이 귀하므로 돈이나 포목을 주니 천한 백성도 미곡으로 장사를 하여 이익을 꾀

5면으로 계속